

[P3 - 13]

파트타임 컨설팅 영양사의 사회복지관 사업 참여: 저소득 재가 노인대상 당뇨식 배달 사업 사례 연구

김학선*, 임정현, 윤지현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Role of part-time consulting dietitians in community welfare center-based nutrition programs: Case study of a meal delivery program to the low-income diabetic elderly

Hak-seon Kim*, Jeong-hyun Lim, Jihyun Yoon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지역주민의 영양에 대한 관심과 요구도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회복지관의 사업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국내 대부분의 사회복지관은 그 재정적 여건상, 풀타임 영양사를 고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파트타임 영양사를 컨설턴트로 아웃소싱(outsourcing)하여 지역사회 영양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국내 소재 한 사회복지관 사업의 사례연구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유사사업을 계획하는 사회복지사들과 이러한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영양사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선의관악종합사회복지관의 재가 노인팀은 2004년도 6월1일부터 7개월간 “저소득 재가 당뇨어르신 셀프케어(self-care)능력 강화를 위한 통합적 사례관리 프로그램”을 지역 노인 10명을 대상으로 시작하였다. 이 사업은 대상자들에게 맞춤형 당뇨식 도시락을 제공함과 동시에, 개인별 운동처방, 당뇨 관리 교육, 정기적 건강검진 서비스를 통해 당뇨의 악화를 방지하고 대상자들의 자기관리능력을 강화시키고자 통합적인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사업은 KT&G 복지재단의 2004년도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1251만 원을 지원받았으며, 복지관의 자부담액을 포함하여 총 1834만원 예산으로 진행되고 있다.

세 명의 영양사가 본 사업에 각각 파트타임 계약직으로 컨설팅하고 있으며, 이들은 인근 대학병원의 당뇨전문 영양사, 인근 대학 식품영양학과 급식전공 대학원생과 교수이다. 대학병원의 영양사의 경우, 동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경로식당의 식단을 본 사업을 위한 당뇨식 식단으로 수정하는 업무와 개별 식이처방 및 사업 대상자를 포함한 지역주민을 위한 단체 당뇨교육을 맡았다. 이 때 식단수정과 개별식이 처방 및 관련회의 참석에 대한 컨설팅료는 월 1회 약 2시간 5만원으로 책정되었고, 단체 당뇨교육은 1회 2시간 20만원의 강사료로 시행 되었다. 경로식당의 기존 식단에서 수정이 이루어진 사항은 식품재료 중에서 탄수화물반찬, 가공품, 밀반찬류의 사용과 조리방법 중에서 튀김법 사용에 관한 것이 주를 이루었다. 인근대학 대학원 학생인 영양사의 경우, 당뇨식의 조리과 배달에 관련된 현장업무 관리에 참여하였다. 초기 사업에서는 주 1회 2시간 시간당 만원의 업무로 계약되었으나, 사업 초반에는 주 3회 정도 복지관에 찾아가서 주로 도시락 제작과 배달과정에 동참하면서 조리원과 배달 봉사자에게 지침사항과 주의사항을 교육하였다. 사업 중반에 접어들어 도시락 제작과 배달이 원활해짐에 따라 보존식 실시와 자원봉사자 개인위생 강화 등에 중점을 둔 관

■ 포스터 발표

리가 주 1회 이루어지고 있다.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영양사의 경우, 본사업의 급식 및 영양 관련 부분에 대한 통합적 조정과 자문의 역할을 담당하여, 월 1회 2시간 5만원의 계약하에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3차에 걸친 사업 실무자 간담회에서, 복지관 측은 제한된 예산으로 말미암아 충분한 컨설팅 서비스를 받지 못한 점, 복지관에 상주하지 않는 파트타임 영양사와의 사업진행에 있어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파트타임 영양사들 역시 조리원 등 복지관 자체 직원들의 외부 인력에 대한 거부반응, 계약내용보다 확대되어 부가되는 관련 업무, 영양사의 전문성에 대한 복지관 직원들의 인식 부족, 직접 주방관리를 하지 못하는 점 등을 사업 진행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파트타임 컨설팅 영양사들의 사업 참여가 사업내용의 질을 높이고 대상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보건소의 사업·영역을 넘어선 다양한 지역영양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사회복지관 사업의 재정적 한계를 고려한 대안으로서 영양사들의 파트타임 컨설팅은 제한적이나 현실성 있는 접근인 것으로 사료된다.